

# 부산 지역 여성교육가 이동희(李東姬)의 교육실천 연구\*

양지원\*\*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이동희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 III. 이동희의 교육실천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근현대 부산 지역의 유치원 교육, 어린이 교육의 성장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인물로 이동희가 있다. 이동희는 부산 지역의 유치원 교육의 선구자이자 어린이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1939년 교사를 시작으로 1978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현장이자 교육의 현장인 지역에서 부산의 어린이 교육의 발전과 유치원 교육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자신의 교육적 신념을 실천하였다. 이동희의 삶과 교육실천을 바탕으로 살펴본 교육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복 이후 부산 최초의 공립유치원인 부산유치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유치원 운영의 체계를 마련하고, 우리 말과 우리 역사 등의 민족교육을 실

\* 본 연구는 2021학년도 부산대학교 BK21 FOUR 대학원혁신지원사업에 의한 연구임.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사 및 교육철학 전공 박사수료 / yjw00920@naver.com

시하였으며, 교구와 장난감을 창작하는 교육방법을 통해 생활 속 교육을 실천하였다. 둘째, 교육단체인 부산유치원교육회를 결성하고, 매년 유치원 교원 재교육 강습회 및 자격 연수를 실시하여, 유치원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 유치원 연합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셋째, 지역 인재 양성 기관인 부산보육전문학원을 설립하였고, 과도한 조기교육 및 유치원 입원 과열 경쟁 현상을 완화하고, 올바른 교육 신념 형성을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제적 학술교류를 통해 지역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교육실무자로서는 전국에서 처음 시교육위원으로 임명되어 유치원 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였다. 이동희의 교육실천 활동은 지방 중심의 교육,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부산 지역의 어린이 교육의 발전 및 유치원 교육의 체계를 형성하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이동희, 여성교육가, 지역사 교육, 어린이 교육, 부산유치원

## I. 머리말

국가나 왕조 중심의 선형적 서사로 진행된 거대담론적 역사관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나 개인이 중심이 되는 미시담론적 역사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나와 부모, 조부모 세대의 총체적인 경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이며, 같은 지역을 공유하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온 지역민의 공동체적인 문화가 응축된 일상의 미시적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지역사는 평범한 대중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 의식, 가치관 등을 보여주는 생활세계를 담고 있으며<sup>1)</sup>, 지역민의 삶

1) 지역사는 개인이나 파편화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집단적인 인간, 즉 공동체 사회의 전체사를 지향하고 있다. 결국 지역사는 역사 속의 인간을 연구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한국사연구회,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경인문화사, 2000, 155쪽).

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교육의 장(場)이며,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 연구는 유명한 장소나 인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드러나지 않은 장소나 인물을 발견하여 그 의미를 알려주고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산 지역의 인물 연구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들로 인하여<sup>2)</sup>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기에 서둘러 연구할 필요성을 지닌다.

근현대 부산 지역의 유치원 교육, 어린이 교육의 성장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인물로 이동희(李東姬, 1917~1978)가 있다. 이동희는 1940~1970년대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제약이 많았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유치원 교사, 유치원 원장, 유치원교육회 회장, 시교육위원 등의 다양한 위치에서 부산의 보다 나은 어린이 교육을 위해 한평생 삶의 현장이자 교육의 현장에서 실천하였던 인물이다. 부산 지역의 유치원 교육의 선구자로<sup>3)</sup> 평가되는 이동희는 부산 최초의 공립유치원인 부산 유치원 원장으로 1946년 임명되어, 광복 후 부산 지역의 유치원 교육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950년에는 여성 인재 양성 기관인 부산보육전문학원(釜山保育專門學園)을 설립하여 지역 교육의 질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교육단체인 부산유치원교육회

2) 한국의 현대사는 격동의 연속이었던 까닭에 커다란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광복 직후의 사회상, 미군의 도군정(道軍政), 6.25전쟁, 등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 연구의 가장 어려운 점은 1차 사료가 거의 인멸된 후에 뒤늦게 현지조사를 하여 2차 사료를 위주로 자료를 찾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의 다른 시기보다 기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관련자의 증언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각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나 후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작업도 중요하다. 해당 사건의 관련자가 작고하거나 노쇠하기 전에 시급히 증언을 정취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사연구회, 위의 책, 147~148쪽).

3) 이동희는 부산에 최초의 한국인을 위한 공립유치원인 부산유치원 원장으로 경상남도에서 임명하였으며, 1950년대 무질서한 유치원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합리적인 유치원 운영,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율적 활동, 부산보육전문학원 설립 등의 혁신적인 노력을 하였다(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부산교육사』, 반도인쇄사, 1987, 325~326쪽).

(釜山幼稚園教育會)를 1947년 결성하고 회장으로 31년간 재임하면서, 매년 교원 재교육 강습회 및 자격 연수 등을 개최하여 지역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교육실무자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1973년 시교육위원으로 임명되어 유치원 현장의 문제 및 사회적인 문제들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국내외적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 어린이 교육, 유치원 교육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국가를 위해 큰 업적을 이룬 인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지역 교육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자신의 교육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한 인물을 조명해 보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동희의 교육실천을 연구하는 데 있어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이동희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한편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동희와 관련된 대표적인 자료로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에서 발간한 『꽃동산의 어머니, 이동희 회고록』이 있다<sup>4)</sup>. 이 회고록은 이동희와 관련된 회고 글, 강의문, 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동희의 삶의 행적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동희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동희, 부산의 유치원 교육사, 부산 여성사 및 여성 교육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먼저 이동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여성사 I; 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sup>5)</sup>, 부산여성사 II; 역사 속의 부산여성(고대~근대편)<sup>6)</sup>, 부산여성사 III; 역사 속의 부산 여성(현대편)<sup>7)</sup>이라는 주제로 부산 지역의 시대와 인물 전반에 걸친 통사적 연

4)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꽃동산의 어머니, 이동희 회고록』, 햇불사, 1979.

5)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상;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 궁디자인연구소, 2009.

6)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상 II; 역사 속의 부산여성(고대~근대편)』, 궁디자인연구소, 2010.

7)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사 III; 역사 속의 부산 여성(현대편)』, 궁디자인연구소,

구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이 중 부산여성사 I; 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에서 해방 이후 여성 인물로 이동희를 소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자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로 각 지역별 여성사와 여성인물에 초점을 두어 자료조사 분석 및 향후 과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제시하였다<sup>8)</sup>. 이 연구보고서에서 연구해야 할 부산의 여성 인물로 이동희를 언급하고 있다.

부산의 유치원 교육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팽영일이 유치원 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해 해방 전과 후로 나누어 연구하였다<sup>9)</sup>. 유치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국가 및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되고 있는 반면, 이 연구는 유치원 교육을 해방 전과 후라는 시대적 특수성과 부산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부산이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여성사 및 여성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이송희가 일제강점기에 초점을 맞춰 부산 지역의 여성교육을 연구하였고<sup>10)</sup>, 오미일은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3.11 독립 만세 시위와 여성운동을 연구하였으며<sup>11)</sup>, 김혜진은 부산 지역 여성독립운동을 연구하였다<sup>12)</sup>. 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부산 지역의 시대적 상황 중심으로 한 연구와 여성독립운동이라는 주제 연구로 그 내용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산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완수해 나가며, 부산의 발전된 교육을 위해 실천하였던 인물들이 있음에도 이들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

2011.

8) 여성가족부, 『여성사 자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한양인쇄, 2017.

9) 팽영일, 「해방 전 부산 지역에서의 유치원의 발전과정」, 『한국교육사학』 24(2), 2002, 197~212쪽.; 「해방 후 부산 지역에서의 유치원의 발전과정」, 『한국교육사학』 25(2), 2003, 139~166쪽.

10) 이송희,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의 여성교육」, 『여성연구논집』 23, 2013, 115~158쪽.

11) 오미일,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3.11 독립만세 시위와 여성운동」, 『항도부산』 37, 2019, 57~104쪽.

12) 김혜진, 「부산지역 여성독립운동사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서 양지원의 부산 지역의 여성교육가 황순조(黃順朝)의 교육실천과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는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3)</sup>.

한 인물의 삶을 연구하는 데에 그 인물이 남긴 논문이나 저서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시대적·사회적 배경, 가정환경, 인간관계, 교육 신념 등이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sup>14)</sup>.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논문이나 저서에 한정하지 않고<sup>15)</sup>, 신문 기사, 사진, 편지 및 일화, 인터뷰 등의 구술자료에 주목하여 이동희의 삶과 그녀가 실천한 교육활동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와 관련된 인터뷰는 총 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시, 장소,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뷰 내용 정리

<p>1. 문창교회 목사 이OO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21년 9월 10일 15시~16시</li> <li>· 장 소 : 문창교회 내 박물관</li> <li>· 주요내용 : 이동희의 집안 이야기, 문창교회 설립, 창신학교 개교, 의신유치원 개원 등과 관련된 일화 및 문창교회 내 박물관에 보관 중인 관련 사진 자료 촬영 등의 인터뷰.</li> </ul>
--

13) 양지원, 「부산 지역 여성교육가 황순조의 교육실천과 교육사상 연구」, 『향도부산』 41, 2021, 219~266쪽.

14) 양지원, 위의 논문, 224~225쪽.

15) 문헌 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할 다른 하나의 문제는 사상 연구가 과연 문헌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과거와는 달리 지금 연구에서는 거의 사상이 직접 쓴 원전(혹은 원전 번역본)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과연 사상이 문헌 자료를 벗어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사진이나 내러티브 등의 (비문자적)예술작품을 통해서도 교육사상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안경식, 「교육사상 연구방법으로서 사상이 연구에 대하여」, 『교육사상 연구』 27(1), 2013, 140~141쪽).

<p>2. 동서대학교 명예교수 팽OO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 시: 2021년 11월 10일 13시~15시</li><li>· 장 소: 부산 연산동 음식점</li><li>· 주요내용: 부산유치원, 이동희와 관련된 일화 및 자료 찾기와 관련된 조언 등의 인터뷰.</li></ul>
<p>3. 전 부산성모유치원 교사·전 부산유아교육진흥원장 김OO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 시: 2022년 2월 3일 13시~15시</li><li>· 장 소: 부산 신평동 찻집</li><li>· 주요내용: 1960~1980년대 부산 지역의 유아교육 상황과 교육적 환경, 유치원 교원 강습회 및 지역 연합 어린이날 행사 개최 등의 이동희 업적과 관련된 일화 인터뷰.</li></ul>

부산 지역의 여성교육가 이동희의 교육실천에 관한 연구는 1940~1970년대 부산 지역의 시대적·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교육 등에 대해 다시 인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교육가 이동희의 삶과 다양한 교육실천 활동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육에 주는 의의도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 Ⅱ. 이동희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 1. 이동희의 생애

이동희는 1917년 3월 29일 마산시 중성동에서 아버지 이순상(李舜相)과 어머니 신덕순(辛德順)의 2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sup>16)</sup>. 증조부 이병직의 둘째 아들인 이승규(李承奎, 1860~1922)<sup>17)</sup>가 집안의 의업

16)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25쪽.

을 전수하여 자수성가하였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산을 정착지로 정하고 형제(이동희의 조부인 이경서), 가족 모두를 이끌고 1903년 부산 동래에서 이주했다<sup>18</sup>). 이승규는 호주 선교사 손안로(孫安路, A. Adams, ?~1915)와 함께 마산 최초의 교회인 문창교회(文昌教會)를 설립하였고, 신학문을 교육하기 위해 민족학교인 창신(昌信)학교<sup>19</sup>)와 의신(義信)여학교<sup>20</sup>)를 설립하였다<sup>21</sup>). 이동희의 집안에서 숙부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 1903~1982)<sup>22</sup>), 큰오빠 이일래(李一來, 1903~1979)<sup>23</sup>), 작은오빠 온제(溫齋) 이광래(李光來, 1908~1968)<sup>24</sup>) 등의 독립

- 
- 17) 이승규는 마산을 영주지로 생각하여 이주한 이후 마산의 기독교 발전에 공헌하였다. 호주선교회 손안로 목사가 마산의 성호리에서 마산교회(문창교회의 전신)를 시무할 때 이승규의 복음전도에 힘썼고, 1906년에 5월 17일 예배당 안에 독서숙(讀書塾)을 만들어 10여 명의 학생을 지도하였다. 이승규가 교사로 한글과 국사 등을 가르치며 민족교육에 주력하였다. 이승규는 1914년에 장로로 안수를 받았으며, 사비를 투자하여 교육사업을 발전시켰다(이상근, 『해방전 한국의 유치원』, 양서원, 1995, 280쪽).
- 1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앞의 책, 2009, 281쪽.
- 19) 1906년 이승규가 설립한 독서숙이 점점 발전하여 1909년 8월 19일 초등과 4년 과정으로 대한제국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았다. 교명은 옛 지명 문창성(文昌星)의 창(昌)과 믿음의 학교란 뜻의 신(信)을 가져와 창신학교라 정하였다(문창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문창교회 100년사』,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76~78쪽).
- 20) 창신학교를 설립할 때 남녀공학이라는 당시 혁신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겨 여자반 28명을 분리하여 호주선교회의 도움으로 1913년 의신여학교가 설립되었다(문창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1, 81쪽).
- 21) 문창교회 목사 이OO의 인터뷰(2021.09.10) 내용.
- 22) 이은상은 시조 작가, 사학자로, 이승규의 둘째 아들이다. 광복 후 국토예찬, 조국 분단의 아픔, 통일에 대한 염원, 우국지사들에 대한 추모 등 사회성을 강조하는 시조를 썼고, 해박한 역사적 지식과 유려한 문장으로 국토순례 기행문과 선열의 전기 등을 써 애국 사상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이은상&ridx=1&tot=12>(검색일: 2022.03.20)).
- 23) 이일래는 동요 작가로, 이방보통학교(현 창녕 이방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산토끼를 작곡하였고, 1938년 『조선동요작곡집(朝鮮童謠作曲集)』을 발간하였다(<https://term.naver.com/entry.naver?docId=2638865&cid=51943&categoryId=54895>(검색일: 2022.03.20)).
- 24) 이광래는 극작가, 연출가, 연극이론가로, 1935년 극예술연구회(劇藝術研究會)에 가입하여 이후 30여 년 동안 희곡창작, 연극론, 연출, 극단 운영 등의 폭넓은 활약을 하였으며, 반사실주의 희곡의 개척자로 평가된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S>

운동가가 배출된 것만 보아도 이동희가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sup>25)</sup>.

이동희는 항일정신과 민족정신이 깃든 집안 분위기 속에서 4살 때 의신유치원에<sup>26)</sup> 들어가 보육과정 3년과 보육학과 1년을 다니며<sup>27)</sup>, 마산 뿐만 아니라 밀양, 창녕에서 열리는 자선음악회와 위안음악회에 출연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공연에 함께 하였다<sup>28)</sup>.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19세 되던 해인 1935년 6월 24일 어머니가 장폐색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네가 많은 어린이의 어머니가 되어 보육계의 개척자가 되어 다오.”라는<sup>29)</sup> 작은오빠 이광래의 조언에 따라, 경성보육전문학교(京城保育專門學校) 보육과를 전공하기로 결심하고, 이때 가족들에게 독신 선언을 한다<sup>30)</sup>. 가부장 중심의 가족 체계에서 당

archNavi?keyword=%EC%9D%B4%EA%B4%91%EB%9E%98&ridx=0&tot=2(검색일: 2022.03.20)).

- 25) 어머니의 입종 후 날마다 어머니의 무덤을 찾는 동생을 보다 못한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막내동생을 묘사한 노래 「엄마생각」을 작사, 작곡하였다(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311쪽).
- 26) 의신유치원 설립은 호주선교회의 맹호은(盟皓恩)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의신유치원 원장인 한기백이 보관 중인 의신유치원 학적부를 보면, 1922년 4월 1일 설립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아일보』(1922.11.14)에 호주선교부가 건축비 2,700원으로 55평 규모의 유치원을 건설 중이라는 내용과 마산유치원의 가극대회 예고가 보도되어 있다(이상급, 앞의 책, 1995, 278쪽).
- 27) 『이동희 회고록』에 의하면, 1920년부터 4년간 의신여학교 부속유치원에 다녔다고 하니, 의신유치원이 1922년 설립하였다고 한 내용과 상치된다. 그러나 기록 이전에 유치원이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었기에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아 가능한 일이라 판단된다(이상급, 위의 책, 280~281쪽).
- 28)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위의 책, 27~28쪽.
- 29)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위의 책, 35쪽.
- 30) 당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신여성 중 김활란(金活蘭, 1888~1984), 김마리아(金瑪利亞, 1892~1944), 황에스터(黃Esther, 1892~1970)처럼 독신이나 만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최혜실,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 월인, 1999, 226~229쪽). 신여성들의 여성 의식은 직업 선택과 독신 선언뿐만 아니라 복식과 머리 양식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1930~1940년대 서양의 의복과 단발은 서양의 유행을 따르는 허영심으로 비판하는 시선들도 있었으나 이것은 변화된 여성 의식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 수단이었기에, 이동희는 만주 봉천보육전문학교 교수 시절 서구 의복을 착용하고,

시 여성이 꿈을 이루어나가는 데 현실적으로 억압과 제약이 많았기에, 이동희는 결혼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여성의 지위가 하락된 당대 현실 속에서 신교육을 통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한 여성들이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에 만족하기보다 자신의 자아실현을 중요시하였던 의식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sup>31)</sup>.

이동희는 경성보육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마산으로 내려와 조부 이승규가 설립한 문창교회 부설 의신유치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한다<sup>32)</sup>. 이동희가 자라는 동안 그녀의 교육사상을 형성하게 만든 기틀이며, 교육에 대한 이념과 민족의식을 정립하게 한 집안이 세운 교육기관에서 자신의 뜻을 펼친 것이다. 당시 이곳은 문창교회의 부속 유치원으로 1925년 9월 내한한 호주선교회의 이명선(李明鮮, C. Ellis) 선교사가 원장으로 있었기에, 그녀가 가진 교육 역량에 경성보육전문학교에서 배운 전문적인 교육이론을 실천하기에 적절한 곳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제3차 교육령으로 일본어, 일본 역사, 일본 교구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희는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경찰의 감시와 학부모들의 항의에 시달린다<sup>33)</sup>. 더 이상 지역의 유치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되자, 1942년 9월 언니 내외가 있는 만주 하얼빈으로 이동하여 봉천(奉天)보육전문학교 교수 겸 빈강성(濱江省), 길림성(吉林省) 일대의 순회보육자로 일을 하며, 그녀의 신념에 따라 한민족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 글을 계속해서 가르쳤다<sup>34)</sup>.

---

단발을 하였다(부산여성가족개발원, 앞의 책, 2009, 282쪽).

31)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위의 책, 282쪽.

32)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38~39쪽.

33)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위의 책, 283~284쪽.

34)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위의 책, 46~47쪽.

광복과 함께 1945년 9월 고향으로 돌아와 29세의 나이로 공립유치원인 부산유치원 원장으로 1946년 7월 1일 임용된다. 1950년에는 부산보육전문학원 설립인가를 경상남도청에서 받아, 원감 겸 교수로 취임하여 지역의 교사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1947년에는 경상남도보육협회장을 시작으로 1978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약 31년간 유치원교육회 회장직을 역임하며, 유치원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교원 재교육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1970년, 1973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세계 유아교육기구(L'Organisation Mondiale Pour L'Education Prescolaire; OMEP) 극동·태평양 지역대회에 참석하였고, 1973년에는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오노미나도(雄湊) 유치원과 국제적인 자매결연을 맺어<sup>35)</sup> 교사 교육 및 자료 교환 등의 교육문화교류를 시작하였다. 그 해 유치원 교육실무자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임명되어<sup>36)</sup>, 교육 현장의 실태를 알리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동희에 대한 1979년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였던 오점량(吳占良, 1916~2012)의 회고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여사님은 참으로 우리나라 안에 둘도 없는 유치원 교육의 선구자요, 진실하고 참된 어린이 교육자요, 또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원만한 유치원 원장이었으며 이론의 수립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어린이를 위하여 항상 유치원 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꿈꾸고 있었으며 60의 회갑이 넘은 나이에도 어린이와 함께 웃고 울고 뛰놀았습니다. 이 여사님은 유아교육의 천재로서 오로지 유치원밖에 모르는 훌륭한 교육자이셨으며 한국의 '프뢰벨'이었습니다. (...) 일생을 어린이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였습니다<sup>37)</sup>.

35) 『부산일보』, 1973.04.06, '일(日) 오노미나도 유치원장 田村權弘씨 인터뷰'.

36) 『부산일보』, 1973.06.07, '시교위 여성위원 이동희여사 임명'.

37)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367쪽.

부산 지역의 유치원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한평생 교육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이동희는 1978년 10월 15일 6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어린이들과 함께 웃고 뛰놀며 체험학습을 다니고<sup>38)</sup>, 장난감을 만들며 자신의 교육 신념을 실천하였다. 그녀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단순히 유치원 교사, 유치원 원장, 유치원교육회 회장, 시교육위원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가진 앎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간,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진정한 교육실천가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2. 광복 후 유치원 교육의 상황

광복 전 일제강점기의 유치원 교육은 1936년 시행된 황국신민화 정책과 1938년 시행된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민족말살정책이 시행됨으로써 한국인을 위한 유치원 교육이 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sup>39)</sup>. 따라서 광복 후 1940~1970년대 유치원 교육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광복 후 유치원 교육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 및 공포된 제86호 교육법에<sup>40)</sup> 유치원 교육의 목적과 유치원 취원연령이 규정됨으로써 유치

38) 이동희 여사는 숨지기 하루 전날인 14일에도 40여 명의 원생을 이끌고 김해까지 가서 벼가 익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직관(直觀)교육을 실시하며 유아들과 뛰어놀았다고 한다(『부산일보』, 1978.10.18, ‘평생을 유아교육에 헌신’).

39) 광복 전 부산의 유치원 교육과 관련된 정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앞의 책, 1987, 324쪽).

40) 제146조 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7조 유치원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일상의 습관을 기르고 신체의 모든 기능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한다. 2. 집단생활을 경험시키어 즐기어 이에 참가하는 태도를 기르며 협동 자주와 자율의 정신을 싹트게 한다. 3. 신변의 사회생활과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싹트게 한다. 4. 말은 바르게 쓰도록 인도하고 동화 그림책 등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5. 음악, 유희, 회화,

원 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의 목적이나 방향은 제시되었지만, 유치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원 교육은 정형화된 기틀을 형성하지 못한 채 6.25 전쟁을 겪었다. 전쟁의 상황에서도 1952년 4월 23일 공포된 교육법시행령에서<sup>41)</sup>, 유치원의 설립인가, 폐지, 원칙, 원아 수, 보육과목 및 보육일수 등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국가적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나 지도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도 제시된 것이 없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부산의 어린이 교육은 1960년대 국가 수준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문교를 비롯한 지도 감독 기관에서도 계획적인 지도를 하지 못한 시기였다. 이 무렵의 유치원의 경영자나 지도 교사도 제대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여 어린이 교육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다만, 이 시기에 부산 유치원교육회가 주동이 되어 유치원 교육의 바른 방향으로 지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수 집회 등을 개최한 바 있었다<sup>42)</sup>.

각 유치원은 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목적 및 교육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의 발달단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sup>43)</sup> 유치원을 운영하였고, 무자격 교원들이 허다하여<sup>44)</sup>, 유치원 교육의 질

수기, 기타 방법에 의하여 창작적 표현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국가기록원, 1949. 12.31, ‘교육법공포(법률 제86)’,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0955022&ds id=000000000001&gubun=search>)).

41) 국가기록원, 1952.04.23,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633호)’,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1035263&dsid=000000000004&gubun=search>).

42)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앞의 책, 1987, 658쪽.

43)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위의 책, 324쪽.

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재교육 강습회, 자격 연수 등의 교원의 자질 향상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일류병(一流病)이 중등학교 평준화로 잠시 고개를 숙이는 듯 했으나 요즘 들어 이 같은 병폐가 유치원 과잉 교육 열풍으로 변화하고 있다. (...) 부산 시내 55개 유치원 중 일류유치원으로 손꼽히는 5~6개 유치원의 경우 자녀들을 입원시키기가 평균 5대 1을 넘고 있다<sup>45)</sup>.

1960~1970년에는 과도한 교육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입시 위주의 잘못된 교육체계에서 비롯된 교육열이 유치원 교육에까지 일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조기교육으로 이어졌다. 당시 유치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부모들의 과열 경쟁은 자기 자식의 성공을 위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일류병(一流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인 병폐는 유치원 교육 과잉 열풍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부산 지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유치원 교육은 광복 후 국가 수준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제정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및 관리가 부족하여, 유치원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동희는 1946년 부산유치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유치원 원칙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유치원 운영을 통해 다른 유치원의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이동희가 회장으로 있던 부산유치원교육회를 중심으로 아동지도 연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수, 교사 자격 연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의 발전에 중추적인

44)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4』, 신흥인쇄사, 1991, 99쪽.

45) 『부산일보』, 1976.12.17, '유치원 입원 과열'.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해 부산의 유치원 교육은 큰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비로소 유치원 운영 및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 Ⅲ. 이동희의 교육실천

부산 지역의 유치원 교육은 일제강점기 일본 거류민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을 1897년 3월 개원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어 1915년 5월 일본인을 위한 공립유치원이 부산공립유치원(釜山公立幼稚園)이란 명칭으로 처음 설립되었다<sup>46)</sup>. 광복과 함께 일본인이 설립 및 운영한 유치원은 모두 폐원되었으나, 부산공립유치원은 경상남도에서 인수하여 1946년 7월 1일 이동희를 원장으로 임명하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립 유치원의 문을 열었다<sup>47)</sup>.

이동희는 교육이 이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현장에 있어서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였다<sup>48)</sup>. 단순히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知)가 삶 속에서 실천되고 행해질 때, 진정한 교육적 가치가 발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신념에 따라 그녀가 시대적·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해 지역에서 실천한 교육적 행보를 크게 부산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 부산유치원교육회에서의 교육활동, 지역사회에서의 교육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46)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앞의 책, 1987, 140~141쪽.

47)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위의 책, 325쪽.

48)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82쪽.

## 1. 부산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

이동희는 1939년 마산 문창교회 부설 유치원인 의신유치원 교사를 시작으로, 1978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평생 유치원 교육에 몸담고 있으며, 교육의 현장에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46년 부산유치원 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유치원 교육과정의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부산유치원에서의 이동희의 대표적인 교육활동으로는 유치원 운영의 체계 마련, 우리 말과 우리 역사 교육, 교구와 장난감 창작 및 제작 등이 있다.

### 1) 유치원 운영의 체계 마련

1940~1950년대 부산의 유치원 교육은 교육법에서 명시하는 교육목표나 교육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의 상황에서도 개인이나 교회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수가 차츰 늘어났는데, 이는 교육적 신념도 가지지 않은 채 유치원 운영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의 결과였다. 이동희는 유치원 운영의 체계가 되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과정 등을 명확히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설치 및 운영되는 유치원들을 보며, 교육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 교육이 아니라 경영자 자신들을 위한 유치원으로 전락하고 만 것을 개탄했다. 유치원이 생활 수단으로 마구 생기는 판국이었고, 손바닥만한 빈터만 있어도 유치원이 들어섰다. 며칠 사이에 후다닥 세워놓고는 유치원 간판을 내걸었던 것이다. (...) 지켜보고만 있던 나도 더는 손 묶고 앉아있기가 괴로웠다<sup>49)</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동희는 1946년 부산의 유일한 공립유치원인 부산유치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체계를 정비하여 주변 사립유치원의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부산유치원의 교육목적 및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유치원 교육목적 및 교육내용〉<sup>50)</sup>

1. 정서적인 심신 발달과 사회교육학적 개념 설정에 주력함으로써 실생활과 연결된 내용으로 생활 중심, 어린이 중심, 실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사들의 자신감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유치원 교사 간의 경쟁의식을 지양하고 협동, 의논, 토의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한다.
3. 수평적으로 민주적인 관계를 이루며, 어린이의 욕구 중심으로 유치원 전체가 하나의 학습장이 되게 한다.

유치원의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은 그 유치원을 이끌어나가는 원장의 교육 신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생활 중심, 어린이 중심, 실제 문제 해결 중심, 교사의 자질 향상, 협동, 토의, 민주적 관계 등의 단어를 통해 이동희가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시선으로 교사와 어린이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부산유치원 원칙〉<sup>51)</sup>

제1장

제1조 본 원은 교육법에 의하여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49)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53~54쪽.

50)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위의 책, 216쪽.

51) 팽영일, 앞의 논문, 2003, 145~146쪽.

제3장 반 편성과 원아 정원

제6조 본 원의 반 수는 3반으로 편성한다.

제7조 정원은 30~40명씩, 100명으로 한다.

제4장 보육일수 및 보육과정

제8조 보육일수는 20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각 반의 교육과정은 별표에 의한다.

제6장 과업의 수료 및 졸업 인정

제12조 본 원의 졸업 또는 각 반의 과업 수료를 인정함에는 평균의 성적을 참고삼아 원장과 보모가 상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전 학년의 과정을 졸업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별지 첨부 제0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원, 전원, 휴원, 퇴원 및 상벌

제14조 본 원에 입원하려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으로 입원자를 결정한다.

제21조 원아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휴원 시 보증인이 서류를 갖추어 서면 또는 구두로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휴원은 3개월에서 1년 이하로 한다.

제23조 전원 시 그 사유를 갖추어 보증인 연서로서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출원 노력이 출중한 자 또는 특히 선행이 있어 타 원아의 모범이 될만한 원아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 원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 원아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는 그 정도에 의하여 근신, 정원 및 퇴원으로 한다.

국가에서조차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체계를 완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동희는 부산유치원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정원, 보육일수, 수료, 졸업, 전원, 징계 등의 유치원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부산유치원을 운영하였다. 특히 부산유치원의 운영 체계는 다른 유치원의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sup>52)</sup> 당시 유치원 운영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시대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을 것이다.

## 2) 우리 말과 우리 역사 교육

이동희는 부산유치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민족교육을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가르친다. 이것은 이동희가 성장 과정에서 받아 온 교육에서 비롯된 신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동희는 1920년부터 4년간 의신유치원을 다녔고, 이어 의신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의신유치원은 호주선교회의 맹호은(孟皓恩, F. MacRae, 1884~1973)이 설립하였고, 의신여학교 교장이었던 미희(鄒喜, I. Mephee, 1881~1937)가 2대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3대 원장은 호주 멜본 유치원 사범과 출신의 전문가 이명선(李明鮮, C. Ellis)이었고, 4대 원장은 일본의 명문교 란바스여학원 보육과 출신의 한국인 신계영(愼季英)이었다<sup>53)</sup>. 이를 볼 때 의신유치원은 상당한 수준의 어린이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지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의신유치원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sup>54)</sup>,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을 사용하여,

52) 그동안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부산유치원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곧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통이 있다. 과밀한 원아수와 교사의 기술부족, 경험부족, 무성, 무책임으로 빚어지는 결과로 어린이로 하여금 실생활에 적응력이 없고 창의성, 융통성,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로 바탕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300여 평의 시설에 원아 60명, 한 학급 20명 이하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개성을 무시한 주입식의 교육 방법으로 어린이의 짝을 짓밟는 공해를 별로 끼치지 않았다는 자부심만은 몇몇이 말할 수 있다(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215~216쪽).

53) 이상급, 앞의 책, 1995, 279쪽.

54) 면답자 박용한(朴容漢, 문성고등학교장, 1923년생) 교장은 만 6세경에 1년간 의신유치원에 다녔다. 교사는 조선말로 어린이들을 가르쳤고, 우리말 노래를 불렀으며, 유

우리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으며, 김유신 장군이나 무궁화 등의 우리 역사를 주제로 가극회를 하는 등 민족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민족교육은 이동희가 성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후에 교사로, 원장으로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그 신념의 바탕을 이루었을 것이다.

일본 경찰이 내가 가는 곳마다 뒤쫓아 다니면서 나를 괴롭혔으나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우리 말을 가르쳤고 우리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우리 역사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 나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빛을 남긴 김유신 장군과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자주 들려주곤 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도 앞으로 자라서 그토록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힘을 주며 강조했던 것이다<sup>55)</sup>.

이동희는 부산유치원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마산의 의신유치원, 통영의 진영유치원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다. 이동희가 교사로 근무하던 당시에는 일본의 제3차 교육령(1938~1943)에 따라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의 역사를 가르쳐야 했으며,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구 역시 일본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압수당하는 분위기였다<sup>56)</sup>. 그러나 교사로서 이동희는 어린이에게 우리 말과 우리 노래, 우리 이야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우리의 역사를 교육하였다. 이러한 민족교육,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동희의 신념은 광복 후 부산유치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도 한결같았다. 우리 말과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교육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조국과 지역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인

치원 가극회에서 김유신 장군이나 무궁화 등을 주제로 민족교육에 역점을 두었다(이상금, 앞의 책, 1995, 280쪽).

55)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40~41쪽.

56) 여성가족개발원, 앞의 책, 2009, 283쪽.

지하고, 올바른 인격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 3) 교구와 장난감 창작 및 제작

이동희는 “어린이의 생활은 놀이이며, 그 놀이를 위한 도구가 장난감이고, 어린이의 자주성·사회성·균형 잡힌 성격 등의 형성은 어떠한 장난감을 제공해 주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sup>57)</sup>.”라고 하였다. 장난감은 놀이의 도구인 동시에 어린이의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발달시키는 중요한 매개물이기에 성별과 연령, 성격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sup>58)</sup>, 선택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희가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장난감의 종류를 분류한 내용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는 장난감<sup>59)</sup>

1세 미만	바람개비, 무엇이나 소리나는 것, 빨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오뎅이, 나팔, 피리, 북, 동물(플라스틱이 아닌 천이나 털실로 만든 것) 등
1세~2세	동물, 밀고 다니는 것(차), 끌고 당기는 차, 탈 것, 인형, 적목(積木), 공, 크레용, 그림책, 모래 도구, 물감, 물장난 도구, 부는 것, 북, 실로폰 등
3세~4세	인형, 소꿉놀이 도구, 탈 것, 팽이, 공, 적목, 그림책, 그림 맞추기, 가위, 색종이, 점토, 수수깡, 크레용, 모래사장, 물놀이 도구, 세발자전거, 그네, 미끄럼틀, 목마(木馬) 등
5세~6세	인형, 소꿉놀이 도구, 탈 것, 팽이, 쿵주머니, 종이 풍선, 공, 공테 던지기, 적목, 그림책, 수(數) 세기 용구, 글자 맞추기, 그림 맞추기, 가위, 색종이, 점토, 수수깡, 구슬꿰기, 크레용, 모래 장난 도구, 물장난 도구, 세발자전거, 그네, 미끄럼틀, 목마, 시소 등

57) 『부산일보』, 1974.08.21, ‘심신을 키우는 어린이 장난감’.

58) ‘장난감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어린이의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난감, 어린이의 상상력을 돕고, 지능개발, 인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난감을 선택할 때는 연령, 성격, 성별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397쪽).

59) 『부산일보』, 1974.08.21, ‘심신을 키우는 어린이 장난감’.

이동희는 어린이의 개성은 다양하고 각각 다르기에, 위의 장난감 분류가 반드시 모든 어린이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덧붙인다. 장난감 선택 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연령에 맞다고 생각하는 장난감을 임의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성격이나 노는 모습을 먼저 관찰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장난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구와 장난감에 대한 이동희의 신념은 직접 교구와 장난감을 창작하고, 제작하여 유치원 현장의 어린이들에게 활용하는 교육 방법으로 행해졌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성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구와 장난감을 손수 창작하여,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던 것이다. 교구와 장난감을 창작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이동희의 모습을 본 당시 부산유치원 교사 강인선의<sup>60)</sup> 회고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녀는 틈만 있으면 톱질, 망치질, 페인트칠 같은 공작 활동을 통하여 창조하는 생활에 몰두하였다. 그녀의 창의적인 영혼과 인격의 빛의 소산인 장난감은 미분화된 어린이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흥미를 약동시켰던 것이다. (...) 식사를 하다가도 무슨 조그만 상자곽이 눈에 띄기만 하면 밥숟가락을 놓으시고 손끝으로 꼼짝꼼짝하면 어느 사이에 어린이 장난감이 만들어지는 특이한 재질이 있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철사나 못 하나도 그냥 보고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어린이 기술 교육의 소재였고 창의력 계발의 교재가 되었던 것이다<sup>61)</sup>.

60) 이동희의 삶과 유치원 교육에서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강인선(1920~?)이다. 그녀는 이동희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고향 후배였다. 1946년 부산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그녀는 1951년부터 부산유치원에서 이동희와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2년 12월 1일 폐쇄할 때까지 부산유치원을 지켰다(부산여성가족개발원, 앞의 책, 2009, 290쪽).

61)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310~334쪽.

이동희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의 놀이 교육에 사용되는 교구와 장난감이 어린이의 성격 형성과 창의력 및 상상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교구나 장난감을 창작하는 것에 매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직접 다양한 재료를 통해 교구와 장난감을 창작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구성하고 이를 실천하였다. 특히 버려진 종이, 상자, 단추 등의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교구와 장난감을 만듦으로써<sup>62)</sup>, 절약정신 및 환경에 대한 교육을 텍스트가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 속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다.

## 2. 부산유치원교육회에서의 교육활동

이동희는 1940~1970년대까지 무자격 교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에서 오는 유치원 교육의 질 하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유치원교육회의 전신이 되는 경상남도보육협회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특히 1947년 경상남도보육협회 회장직을 시작으로 31년간 부산유치원교육회의 회장직을 역임하며, 지역의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부산유치원교육회에서의 이동희의 대표적인 교육활동으로는 부산유치원교육회 결성 및 운영, 유치원 교사 강습회 개최, 지역 연합 어린이날 행사 개최 등이 있다.

62) 남들이야 어떻게 하든 나는 내가 맡은 유치원 일에만은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갔다. 나는 폐품을 이용해서 교구를 만들어 썼다. 길가에 버려진 종이 한 장, 단추 하나, 못 한 개를 예사로 보아 넘기지 않고 쟁겨다가 무엇이든 만들어 내서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쓰도록 했던 것이다. 이렇게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내버리는 것을 활용해서 어린이 교육에 쓰임새를 보임으로써 어린이에게 물자를 절약하는 정신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쭙잡은 것에서도 훌륭한 장난감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통해 어린이들의 성격 형성과 창의력을 길러 주는 데 온 정성을 쏟았다(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54~55쪽).

## 1) 부산유치원교육회 결성 및 운영

1947년 7월 20일 경상남도 학무국에서 개최한 『어린이 교육 강습회』에서 지역의 보다 나은 유치원 교육을 위해 윤인구(尹仁駒, 1903~1986)<sup>63</sup>, 김동선(金東鮮)<sup>64</sup> 등의 주도하에 경상남도보육협회가 발족하여, 초대 회장으로 이동희가 선출되었다<sup>65</sup>). 그 후 경상남도보육협회는 부산보육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하자 부산유치원교육회로 다시 변경되어 1986년까지 운영되었다. 부산유치원교육회의 근원이 되는 경상남도보육협회의 결성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유치원교육회는 1947년 7월 20일 경상남도 학무국에서 주최한 어린이 교육 강습회 끝에 경상남도보육협회를 조직한 것이, 부산유치원교육회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경상남도보육협회 발족시 부산유치원장이던 이동희(李東姬)가 회장으로 선출되어 1978년 사망할 때까지 줄곧 회장직을 맡아 왔는데, 그동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 내용은 유치원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을 주도해 온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어 유치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 연수회 지도 실제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한때는 유치원 교사 자격 강습 등도 위임받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부산과 서울의 저명한 유아교육 관계 교수들을

63) 부산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지낸 부산 출신의 교육자로, 광복 직후인 1945년 11월 미군정 하의 경상남도 내무부 학무과장을 지냈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17693&cid=55774&categoryId=55965>(검색일: 2022.07.19)).

64) 1947년 경상남도 사회과 성인교육 과장이었던 김동선은 1950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 322호에 의하여 교육국과 사회국이 통합되자, 1950년 7월 23일 초대 문교사회국장에게 임명된 인물이다(경상남도교육청, <https://www.gne.go.kr>).

65) 『어린이 교육 강습회』가 끝나는 날 경남 학무국장 윤인구 박사, 사회과 성인교육 과장(후에 학무국장) 김동선 목사의 주도하에 경남보육협회라는 명칭으로 발족하여, 지방 각 시·군·읍까지 총망라하여 조직할 것을 계획하고 정관에 관한 일진 서류까지 만들어 회장을 선출하였다(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219쪽).

초빙하여 내실있는 연수를 진행하였다<sup>66)</sup>.

부산유치원교육회는 부산 지역의 유치원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교육단체로써, 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교원들에 의해 유치원이 운영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 재교육 강습회를 열어 유치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업지도, 아동심리, 생활지도 등의 이론 및 실제와 관련된 연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또한 1967년부터 유치원 교원 자격 강습회를 부산시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하면서, 지역의 무자격 교원들의 수를 줄여나가는데 기여하였다.

체계적인 국가의 지도 및 관리가 부족하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힘들었던 시대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지역의 인물이 직접 나서 교육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원 재교육을 위한 강습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물질적,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동희는 사비를 내어 지역의 유치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였다.

## 2) 유치원 교원 강습회 개최

이동희가 회장으로 있던 부산유치원교육회는 유치원 교원들의 이론 및 실기 지도와 관련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유치원 교사, 원감, 원장 등을 대상으로 매년 하계강습회를 개최하였다. 1972년 부산성모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며 하계강습회에 참석하였던, 전 부산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OO의 인터뷰(2022.02.03) 내용

66)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앞의 책, 1987, 669~670쪽.

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 연수를 여름이 되면 주로 서울을 가는데, 이때 이동희 선생님이 지역에서 교사 연수를 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 당시에는 유치원 교사들의 연수를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전부 다 일단 졸업하고 나면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게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님이 주체하는 거기에 가면 뭐라도 배울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교사가 1명이 어린이 50명을 맡았어요. 성모에 있을 때, 유치원 수녀님이 한 반을 맡고 계셨는데, 2월에 피정(避靜) 가시면 내가 혼자서 90명, 100명을 다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1대 100으로 상대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내 이야기를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강습회의 강사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집중할 수 있는 손울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실기 위주로 했어요. 사실 이론적인 지식 전달은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실기 위주는 유치원에서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사들이 좋아라 했고, 항상 많은 교사들이 참여를 했어요.

하계강습회는 현장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기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전국의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양질의 교육을 지역적 이동 없이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그 참여자의 수가 늘어났고, 만족도도 높았다. 이러한 하계강습회는 1947년 7월 20일 경상남도 학무국에서 주최한 「어린이 교육 강습회」가<sup>67)</sup>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제1회부터 제5회까지의 하

67) 1947년 7월 20일 그 무렵까지 내가 각 유치원을 찾아다니고 진정한 끝에 바로 그날 경상남도 학무국에서 주최한 「어린이 교육 강습회」에서 당시 어린이 교육 무용 제1인자인 강사 함귀봉 선생을 모시고 시작하였다. (...) 그 제1회 강습회가 오늘날까지

계강습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하계강습회 주요 내용 정리<sup>68)</sup>

	기간 및 장소	강사	내용
제1회	1947년 7월 20일	함귀봉 등	교육무용 등
제2회 <sup>69)</sup>	1960년 6월 22일-1960년 6월 27일 토성국민학교 강당	경기여대 교수 정혜옥, 계창순, 이종선, 이은상, 아동문학가 이주홍 등	반주법, 보육이론, 무용창작법, 아동 교육에 관한 교양강좌 등의 내용. '가을이 오네', '앵두', '조각달', '구슬비', '어머니', '금이랑 은이랑', '봄노래' 등의 음악, '동물의 집(닭, 돼지, 토끼, 늑대, 개)', '수병', '아름다운 추억' 등의 무용 <sup>70)</sup>
제3회 <sup>71)</sup>	1962년 8월 7일-1962년 8월 15일 동광국민학교 강당	경기여대 교수 정혜옥, 이화여대 교수 이순일, 아동문학가 윤석중 등	무용창작법, 음악, 아동교육 등의 내용. '인형아기', '장미꽃', '토끼님', '물레방아', '눈싸움', '어머니', '우리엄마', '숨바꼭질', '팽이', '천년만년', '어린이 만세', '어린이 동산' 등의 무용과 음악 <sup>72)</sup>
제4회 <sup>73)</sup>	1964년 6월 27일-1964년 7월 2일 동광국민학교 강당	숭의보육 대학 교수 김정하 등	교육무용 창작 및 지도법, 특별 아동 지도법, 음악 등의 내용. '인사하세요', '연날리기', '징글벨', '숨바꼭질', '꼬리잡기', '새나라의 어린이' 등의 무용, '꼭꼭 숨어라', '구슬비', '토끼', '병아리', '착하고 아름답게', '눈사람', '다람쥐', '봄', '하늘나라' 등의 음악, '짜찾기', '의자뺏기', '새집 속의 새', '짐승잡기', '순경과 도둑놈',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누냐', '동물달리기', '자기소개' 등의 게임 <sup>74)</sup>

부산유치원교육회로 30여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셈이다(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219~220쪽).

68) <표 3>의 하계강습회의 주요 내용 정리 중 기간 및 장소, 강사, 내용은 『부산일보』 기사문을 정리한 것이고, 내용에서 구체적인 무용과 음악 등의 제목은 팽영일(2003) 논문을 참고한 것이다.

제5회 <sup>75)</sup>	1965년 7월 20일-1965년 7월 24일 경남여자고등학교 교강당	경기대학 무용과 교수 정혜옥 외 6명	무용창작법, 아동교육 심리학 등의 어린이 생활지도 등의 내용. '고향의 봄', '어린이 행진곡', '수레', '유치원 동무', '꿀돼지', '병아리', '팽이', '어디서 살까', '우리는 잔디밭에', '고드름', '누구를 닮았을까요', '기린과 사슴', '울면 밭대요', '내친구 예수님', '동무끼리' 등의 음악과 무용 <sup>76)</sup>
--------------------	--	----------------------------	--

하계강습회는 1947년을 시작으로 1965년 개최된 제5회 이후로도 부산유치원교육회 회장인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교원의 자질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매년 새로운 강습 내용을 구성하고, 전국에서 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1977년 7월 26일에는 부산유치원교육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로 「어린이를 보는 눈」의 교육 강습회와 「꽃동산의 밤」이라는 발표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sup>77)</sup>.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와 가정교육’, ‘어린이 정신위생’, ‘유아기 어린이 행동의 특징’, ‘어린이 행동과 그 문제점 해결방안’, ‘교사의 자질이 어린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조형활동’, ‘어린이 교육무용 및 새노래’, ‘어린이 놀이와 장난감’, ‘어린이 그림지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꽃동산의 밤」 발표회에서는 부산 시내의 60여 개 유치원의 교사 100여 명이 참가하여 이동희의 큰오빠 이일래가 작곡한

69) 『부산일보』, 1960.07.07, ‘하기교육무용 강습회’.

70) 팽영일, 앞의 논문, 2003, 148쪽.

71) 『부산일보』, 1962.07.26, ‘하기교육 무용과 보육이론 강습’.

72) 팽영일, 위의 논문, 148쪽.

73) 『부산일보』, 1964.07.23, ‘아동무용 강습회’.

74) 팽영일, 위의 논문, 148쪽.

75) 『부산일보』, 1965.07.19, ‘아동의 심리학과 교육무용강습회’.

76) 팽영일, 위의 논문, 148쪽.

77) 『국제신보』, 1977.07.25, ‘꽃동산의 밤 공연 갖는 이동희 여사’.

‘산토끼’ 외 22곡의 동요와 숙부 이은상이 쓴 가극 ‘꽃동산’을 공연하였다. 그다음 해인 1978년 7월 25일 개최된 제31회 유치원 교원 하계강습회(가78) 이동희의 생애 마지막 강습회로 남아있다. 이동희의 작고 후에도 매년 개최된 강습회는 1986년 7월 25일 개최된 제39회 『신체활동이 미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가79)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그동안 이동희에 의해 매년 개최된 부산유치원교육회의 교원 재교육 강습회는 지역의 유치원 교사의 자질 향상과 어린이 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목적 아래 부산 지역의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하여(가80)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 및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 3) 유치원 연합 어린이날 행사 개최

이동희는 부산유치원교육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교원 재교육 강습회 개최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의 교원, 어린이, 학부모의 화합과 소통의

78) 『부산일보』, 1978.07.07, ‘어린이 교육강습’. 부산교육대학 강당에서 7월 25~29일 개최. 『어린이 교육과 가정교육이 미치는 발달 가능성』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습회 강사진은 박조열 오점량 이원호 교수(이상 부산대), 박종원 염태진 교수(이상 부산교대), 이원수 작가 등 11명.

79) 『부산일보』, 1986.07.14, ‘어린이 교육강습’. 부산교육대학에서 7월 25~27일 개최. 강습회의 주제는 『신체활동에 미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 ‘합주지도’ 박종원 부산교대 교수, ‘음률’ 이영 연세대 교수, ‘유치원 교육과 초등학교의 연계성 토의’ 홍순옥 산업대 교수, ‘교실환경구성’ 최옥순 동우전대 등.

80) 부산유치원교육회 강사 명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은상 박사, 오복근 교육감, 홍순철 교육감, 구용현 교육감, 김태련 교수(이화여대), 이은화 교수(이화여대), 이상금 교수(이화여대), 김정환 교수(이화여대), 김재은 박사(이화여대), 박준희 박사(이화여대), 장병림 교수(서울대), 이길상 박사(연세대), 하경숙 교수(경희대), 오점량 교수(부산대), 이원호 교수(부산대), 김도환 박사(부산대), 최중옥 교수(부산대), 윤학자 교수(부산대), 김원희 교수(부산대), 염태진 교수(부산교대), 박종원 교수(부산교대), 국제원 교수(부산교대), 박재규 교수(부산교대), 정혜옥 교수(경기대), 홍용선 문학박사, 윤석중 회장(새싹회), 이원수 아동문학가, 함귀봉 선생 등(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년, 226~228쪽).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 연합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처음에는 부산 시내 유치원 합동원유회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대부분의 유치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행사로 발전하였으며, 학부모의 참여로까지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1972년 부산성모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며 당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였던, 전 부산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OO의 인터뷰(2022.02.03)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날 행사는 구덕운동장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산일보, 국제신문의 후원을 입어 개최되었고, 학부모를 다 동원 시켰어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해 근 1달 동안을 아이들 지도 이런 거 하고, 총연습을 3일 정도 했어요. 그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1천 명이 넘었지 싶어요. 구덕 운동장을 딱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어린이날 행사는 오늘날처럼 각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산 시내 대부분의 유치원 교원, 어린이, 학부모가 총체적으로 연대하여 개최되었다. 1976년 『부산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면<sup>81)</sup>,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어린이 1천 명과 학부모 1천 명 이상이 참가한 지역사회의 큰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부산유치원교육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지역 연합 어린이날 행사는 부산의 대부분의 유치원이 참가하여 함께 준비하며 화합할 수 있는 계기

81) 어린이날 경축대회의 시범 행사 중 초두를 장식하는 프로그램은 부산유치원교육회가 마련한 유치원 어린이들의 유희. 새파란 잔디밭 위에서 1천 명의 귀염둥이들과 또 1천 명의 어머니들이 벌이는 갖가지 유희와 노래가 화려하게 푸른 잔디를 수놓는다. (...) ‘새나라의 어린이’, ‘태극기가 바람에 펨럭입니다’, 조국 찬가’, ‘어머니 노래’ 등의 노래에 따라 고사리 손을 벌려 유희를 한다. (...) 통일을 상징하는 태극기 모형 유희는 엄마들이 네 귀퉁이에서 태극기 가의 패가 그려진 보자기를 잡고 서 있고, 아기들은 가운데에서 네 겹으로 원을 만든다(『부산일보』, 1976.04.22, ‘오늘은 우리들 세상’).

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교사, 어린이, 학부모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 3. 지역사회에서의 교육활동

이동희는 국가 중심의 교육체제 속에서 유치원 교육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역 유치원 교육의 본질을 확립하고, 올바른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 이동희는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의 교육적 신념을 펼쳐나갔다. 지역사회에서의 이동희의 대표적인 교육활동으로는 부산보육전문학원 설립, 부모교육 실시, 국내외적 학술 교류 등이 있다.

#### 1)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부산보육전문학원 설립

부산보육전문학원은 부산유치원 내에 설립하였던 유치원 교사양성 기관이다. 이동희는 유치원 교육이 올바른 방향성을 지향하려면, 보육전문학원을 세워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 지역의 어린이 교육, 유치원 교육의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는<sup>82)</sup>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부산보육전문학원 개원 과정과 관련된 『부산일보』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교적 교육기관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성의 교육적 지위를 높이는 동시 교육의 실생활화로써 현모양처 품성을 배양하는 한편 사회 각 부문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위의 여성 배양 기관의 설립이 항도 부산에서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던 차, 전경남도 사회교육과장으로 있던 김동선씨는 이 점에 감안하여 이번 단일 학원으로서 시내 동광동 4가 44에다 부산보육학원을 설립하고

82) 부산유치원 교육연구회, 앞의 책, 1979, 55쪽.

오는 5월 1일부터 개교를 위하여 교사급 설비의 완비와 더불어 사계의 우수한 교사들을 초청하는 등 그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데 입학자격은 여중교 4년 수료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이고 시험기일은 오는 4월 15일, 16일 양일이라는 바 특히 동학원을 졸업하면 도내 유치원 보모, 탁아소 보모 및 양육 교사, 국민교 준교사로써 채용되는 특전이 부여된다고 한다<sup>83)</sup>.

이동희는 여성의 교육적 지위 향상 및 현모양처의 품성 배양이라는 설립목적과 사회 각 부분의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배양 기관이 부산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여, 부산보육전문학원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여중교 4년 수료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라는 입학자격과 졸업시 경상남도내 유치원 보모, 탁아소 보모, 양육교사, 국민교 준교사 채용이라는 특전 등의 원칙을 규정하여, 1950년 6월 1일에 개원하였다.

오래전부터 준비중에 있던 부산보육학원에선 도내 1·2차에 거하여 고시한 결과 합격자 33명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개교하게 되었는데 보육학원은 부산에 처음 되는 것이며 그 교수진에 있어 우수한 전문가를 망라하였으므로 일반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84)</sup>.

부산보육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동희가 원감 및 교수자로 임명되어 있었기에 그녀가 졸업한 경성보육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인 아동미술, 아동의학, 무용운동, 보육학 아동심리 등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지닌다<sup>85)</sup>.

83) 『부산일보』, 1950.03.10, ‘현모양처를 양성, 부산에 보육학원 신설’.

84) 『부산일보』, 1950.06.01, ‘보육학원 개교’.

8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20508&cid=55772&categoryId=>

그러나 1개월을 채 운영하기도 전에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해 부산보육전문학원은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폐원하였다.

이동희는 국가 및 중앙 중심의 교육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지역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행에 옮겨 나갔다. 이동희에 의해 추진 및 설립된 부산보육전문학원은 시대적·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 운영되고 폐원하였으나, 부산 지역의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그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2) 조기교육 및 과잉 교육열 완화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1960~1970년대 자녀를 명문 중학교 진학률이 높은 일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sup>86)</sup> 부모들의 과도한 조기교육 및 과잉된 교육열이 유치원 입원 경쟁이라는<sup>87)</sup>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 과외, 7시 등교 등이 예상일로 나타났으며, 일부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로 토요일을 공부하는 날로 정해 글쓰기와 셈하기를 가르쳤다<sup>88)</sup>. 이는 1968년 「7.15 어린이 해방」으로 중학교 입학시험이 폐지되었음에도 명문교에 입학하기 위한 부모의 과잉 교육열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동희는 취학 전 조기교육을 목적으로 한 유치원 입원 경쟁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부모의 올바른 인식이 어린이 교육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

55811(검색일:2022.03.30).

86)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앞의 책, 2009, 287~288쪽.

87) 유치원의 문이 좁아져 부산서 이름있는 유치원의 경우 입학률이 5대 1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학부모들의 어린이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특수교육, 사치교육의 이상(異常) 열기라는 비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부산일보』, 1976.12.20, ‘더 늘려야 할 유치원, 입원 과당경쟁이 빛는 문제점’).

8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위의 책, 288쪽.

조하였다.

잣대로 잦 결과를 쫓게하기 위해 잣대 재는 법부터 먼저 익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교육방법으로 일시적 방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입학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보다 어린이 생활 전체에 걸쳐 지능을 고루, 정상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sup>89)</sup>.

유치원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을 자각시키고, 사고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인 분위기의 쇄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이동희는 주장한 것이다. 지역 신문인 『부산일보』에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하고, 『국제신보』에 1977년 5월 18일에서 1977년 11월 30일까지 『어머니를 위한 강좌』 총 24편을 연재하여, 과도한 조기교육 및 과잉 교육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였고, 지역의 어린이 교육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치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교육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인격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3~7살짜리 어린이를 다루어오면서 이 시기 어린이들에게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이원장은 말했다. 미술연구소다 피아노교습소다 하면서 어린이의 소질과 취미조차 아랑곳없이 어른의 사치스런 욕심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가를 아버지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와 어린이 교육과정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 어린이의 성격을 빼뺏어지게 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항상 어린이에게 사랑의 공복감을 주지 않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sup>90)</sup>.

89) 『부산일보』, 1974.12.10, ‘유치원교육 문제점(上)’.

90) 『부산일보』, 1970.05.07, ‘목요일에 만난 사람, 부산유치원 이동희 원장’.

이동희는 부모들이 시대적·사회적인 기류에 편승하여 자녀를 교육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자녀교육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유년기의 교육은 유치원에 의존한 교육보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온전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발달단계에 따른 개별 어린이의 성장 과정을 배제한 채,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자녀를 교육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성격과 행동에 부모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사랑과 이해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 3) 지역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활동

이동희는 지역의 유치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세계의 교육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1964~1977년까지 매년 1~2회 세미나 및 강연으로 해외를 다녔다. 그녀의 교육활동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1970년, 1973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극동-태평양지역 대회 참석, 1973년 일본 와카야마현의 오노미나도 유치원과의 자매결연, 1973년 유치원 교육실무자로서 전국에서 처음 시교육위원 임명 등이 있다.

세계유아교육기구 세미나에서는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였던 조기교육, 교사 자질 향상 등의 문제들과 유아교육의 필요성 및 유아 의무교육 실현 등의 내용을 토대로 국제적 교류를 통한 학습의 장이 열렸다<sup>91)</sup>. 이러한 관심사는 단순히 그 시대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91) 부산유치원 교육연합회 이동희 회장은 지난 40일 동안 일본 유아교육 현황을 둘러보는 한편 동경에서 열린 OMEP(세계유아교육기구) 극동-태평양지역대회(11월 15일~11월 19일)에도 한국 대표로 참석, 최근 귀국했다. (….) 유아교육의 연령 인하, 즉 조기교육 문제가 세계적인 추세로 싹트고 있다. (….)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에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늦은 느낌이 없지 않으나 지금부터라도 개발되어야 한다. (….) 또 유치원 교사의 자질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자체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다(『부산일보』, 1970.12.09, ‘소외된 유아교육’).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유아교육기구에 1990년 정식 가입하였다는 OMEP 한국위원회의 자료를 볼 때<sup>92)</sup>, 1970년, 1973년 세계유아교육기구 세미나에 이동희가 참석한 것이 이동희의 『회고록』과 『부산일보』에서 밝힌 한국의 대표자 자격이 아닌 민간적인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 국가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도 개인이 지역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세계의 어린이 교육의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여 안목을 넓히려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즉 이동희의 세계유아교육기구 세미나 참석은 지역의 어린이 교육의 성장 및 유치원 교육의 발전이라는 소명 의식에서 비롯된 교육실천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동희는 1973년 3월에는 부산유치원과 일본 오노미나도 유치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교사 교육 및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자료 교환 등의 국제적 학술교류 및 소통의 장을 추진하였다<sup>93)</sup>.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 문화 등의 교류는 지역의 유치원 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이동희는 본 것이다. 이러한 자매결연

92)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World Assembly에서 준비국으로 인준 받고, 1990년 8월에 OMEP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OMEP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지식,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단체로 8세 이하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로 구성된 범세계적인 기구이다. 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며, 현재 준비국을 포함하여 세계 72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OMEP 한국위원회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및 세계대회에 대표자를 파견하고, 각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세계의 학자 및 교육자들과 함께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교환한다(OMEP KOREA(한국위원회), <http://www.omepkorea.org>(검색일: 2022.03.28)).

93) 일본 와가야마 오노미나도 유치원장 다무라 깡포(田村權弘)씨가 지난 2일 부산지방 유아교육계를 돌아보기 위해 부산을 찾아왔다. 오노미나도 유치원은 지난 3월초 부산유치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유치원. 한일유치원끼리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상호 교사 교류 자료 교환을 통한 두 나라의 유아교육 발전에 뜻을 두고 있다고 다무라씨는 말했다. (...) 자매결연으로 국제간 유아교육발전으로 발돋움하려는 뜻이 있다고 한다(『부산일보』, 1973.04.06, ‘일(日) 오노미나도 유치원장 田村權弘씨 인터뷰’).

은 오늘날에도 학술교류 및 문화, 역사 교류 등의 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당시 1970년대 초 이동희의 국제적 자매결연은 지역 안에서의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개방적이며,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한 교류 활동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어린이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동희의 노력은 국외에서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1973년 유치원 교육실무자로는 부산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로 시교육위원으로 임명되었다<sup>94)</sup>. 유치원 교육의 현장에서 34년 동안 지역 어린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 노력한 이동희는 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당시 유치원의 실태 및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부산시의 당연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동희는 부산 지역의 어린이 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였다. 일부에서는 이동희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sup>95)</sup> 폐쇄적인 유치원 운영을 하였다는 비판의 소

94) 지난 5일 부산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임명된 부산유치원 원장 이동희여사는 이제 교육행정에서도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이 심어질 계기가 열릴 것 같다면서 자신의 교육위원 피임을 반겼다. 이여사는 22세부터 34년 동안 오직 유치원 꼬마들의 올바른 성장만을 지키며 살아온 처녀 할머니, 꼬마들과의 생활에 묻혀 유치원 교육의 발전에 생애를 바쳐온 이여사의 노력이 유치원 교육의 실무자로서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교육위원 임명으로 결실을 본 것이라고 할까?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법에서조차 유치원 교육은 의붓자식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법에도 법의 맨 끝머리에 있는 등 마는 등 유치원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을 뿐인 현실이라 실제의 교육행정에서 지금까지 유치원 장학지도가 거의 없었던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이여사는 말한다. (….) 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앞장을 서도 결국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체험에서 얻어진 이여사의 결론이다. (….)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만만찮은 포부를 털어놓았다(『부산일보』, 1973.06.11, ‘교육위원 된 부산유치원장 이동희 여사’).

95)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앞의 책, 2009, 290쪽.

리도 있지만, 그녀가 누구보다도 지역 유치원 교육의 보다 나은 발전과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내외적 교류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평가 절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자신의 교육 신념을 관념적인 제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행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간 이동희는 대표적인 부산 지역의 여성교육가이며, 교육실천가라<sup>96)</sup>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위주의 교육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 ‘서울 위주, 지방 들러리’식의 통념과 실상은 이동희가 살았던 1970년대나 『부산시사』에서 부산 교육의 과제로 제시한<sup>97)</sup> 1990년대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다만 2015년 개정 교육과정<sup>98)</sup>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 교육청에서 지역사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 교과서를 발간하거나 체험학습, 현장학습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살아 있는 교육, 문화를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

96) 이동희는 교육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12월 5일 문교부 장관 표창, 1970년 12월 29일 부산시 문화상 등 여러 상(賞)을 받았다.

97) 우리 역사에 지방교육의 위상은 이른바 근대라고 일컫는 시기 이후 더욱 수도권중의 집중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제도교육은 지방교육의 상대적 약화와 그 부실이 당연 시되고 심하게는 그 악순환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었음은 오늘날의 한국교육의 숨길 수 없는 모습일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그랬듯이 서울 위주, 지방 들러리 식의 통념과 실상은 교육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 앞으로 부산 지역 주민 모두가 애정과 긍지로 대할 수 있는 부산교육의 위상 정립이 곧 1990년대 부산 교육의 과제이자 바람이 될 것이다(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1, 137~138쪽).

98) 교육부 보도자료, 2018.06.22,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조명하고, 그 인물의 교육적 활동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인물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상황, 교육, 문화, 역사 등의 모든 부분을 고찰함으로써, 그 인물이 주는 교육적 의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도 재인지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근현대 부산 지역의 유치원 교육의 선구자이자, 어린이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대표적인 인물인 이동희는 1939년 의신유치원 교사를 시작으로, 1978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치원에서 교사,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였다<sup>99)</sup>. 부산 교육의 성장을 위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실천을 중요시하였고, 행함을 통해 진정한 교육적 가치가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동희의 교육적 신념은 유치원, 유치원교육회,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교육관을 실천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국가 중심의 교육 운영 속에서 지방 중심의 교육,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부산 지역 여성교육가인 이동희의 교육실천이 주는 교육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0~1950년대 혼란스러운 시대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유치원 운영의 체계를 마련하였고,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 역사 등의 민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구와 장남감을 직접 창작하거나 제작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삶과 동떨어진 교육이 아닌 생활 속 교육을 실천하였다. 둘째, 1940~1970년대 무자격 교원들이 어

99) 한평생을 독신으로 유아교육에 몸 바쳐온 부산유치원 원장 이동희 여사(61)가 지난 15일 새벽 3시께 별세했다. 향일 투사 집안에서 철저한 향일교육을 받고 자란 이원장은 19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수많은 어린이의 어머니가 될 것을 결심, 유아교육에 몸 바쳤다. (...) 지금까지 1천 5백 명의 유아를 교육하였고, 수많은 보모들을 육성하였다(『부산일보』, 1978.10.18, ‘평생을 유아교육에 헌신’).

린이를 교육하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실태 속에서 발생한 유치원 교육의 질 하락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단체인 부산유치원교육회를 결성하였다. 유치원교육회 회장직을 약 31년간 재임하면서, 1947년부터 하계강습회를 매년 개최하여 유치원 교원의 재교육 강습과 자격 연수를 통해 이론 및 실기 지도와 관련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 유치원의 교원, 어린이, 학부모의 화합과 연대를 위해 유치원 연합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셋째, 지역 유치원 교육의 본질을 확립하고, 올바른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 지역의 인재 양성 기관인 부산보육전문학원을 1950년 설립하였고, 1960~1970년대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와 부모들의 과도한 조기교육 및 과잉 교육열에서 비롯된 유치원 입원 경쟁 현상 속에서 부모의 올바른 교육 신념 형성을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계유아교육기구 세미나 참석 및 일본 오노미나도 유치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적인 학술교류 활동을 펼쳤으며, 시교육위원로서 유치원 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나서는 등 다양한 국내외적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동희는 한평생 삶의 현장이자 교육의 현장인 지역에서 어린이 교육의 발전과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시대적·사회적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며 추진한 것이다. 유치원 교육이 소외되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어린이 교육, 유치원 교육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하여 헌신하고 공헌한 이동희와 같은 인물로 인해, 오늘날 부산 지역의 어린이 교육, 유치원 교육이 그 체계를 형성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 부산 지역의 어린이 교육, 유치원 교육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인물인 이동희의 다양한 교육실천 활동을 통하여 그 교육사적 의의를 밝혀 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동희가 당시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어린이를 교육하고 유치원을 운영하였는지 그녀의 교육사상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이동희의 교육사상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이동희의 교육적 신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녀의 교육실천이 어떠한 교육사상으로 집약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 | 참고문헌 |

### 1. 저서 및 논문

- 김혜진, 『부산지역 여성독립운동사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경상남도교육위원회, 『慶南教育史』, 태화출판사, 1980.
- 문창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문창교회 100년사』,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 『釜山教育史』, 반도인쇄사, 1987.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釜山市史 4』, 신흥인쇄사, 1991.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상 I;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 굳디자인연구소, 2009.
- \_\_\_\_\_, 『부산여성상II; 역사 속의 부산여성(고대-근대편)』, 굳디자인연구소, 2010.
- \_\_\_\_\_, 『부산여성상III; 역사 속의 부산 여성(현대편)』, 굳디자인연구소, 2011.
- 부산유치원교육회, 『꽃동산의 어머니, 이동희 회고록』, 햇불사, 1979.
- 안경식, 『교육사상 연구방법으로서 사상이 연구에 대하여』, 『교육사상연구』 27(1), 2013, 121~146.
- 양지원, 『부산 지역 여성교육가 황순조의 교육실천과 교육사상 연구』, 『항도부산』 41, 2021, 219~266.

- 여성가족부, 『여성사 자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한양인쇄, 2017.
- 오미일,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3.11 독립만세 시위와 여성운동』, 『함도부산』 37, 2019, 57~104.
- 이상금, 『한국근대유치원교육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 \_\_\_\_\_, 『해방전 한국의 유치원』, 양서원, 1995.
- 이송희,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의 여성교육』, 『여성연구논집』 23, 2013, 115-158.
- 이일래, 『조선동요작곡집』, 남향문화사, 1975.
- 최혜실,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 월인, 1999.
- 팽영일, 『부산 유치원 교육 100년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2001, 15~44.
- \_\_\_\_\_, 『해방 전 부산 지역에서의 유치원의 발전과정』, 『한국교육사』 24(2), 2002, 197~212.
- \_\_\_\_\_, 『해방 후 부산 지역에서의 유치원의 발전과정』, 『한국교육사학』 25(2), 2003, 139~166.
- 학교법인 창신기독교학원, 『昌新百年史』, 도서출판 다락방, 2008.
- 한국사연구회,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경인문화사, 2000.

## 2. 인터뷰 자료

- 동서대학교 명예교수 팽OO 인터뷰(2021.11.10.)
- 문창교회 목사 이OO 인터뷰(2021.09.10.)
- 전 부산성모유치원 교사·전 부산유아교육진흥원장 김OO 인터뷰(2022.02.03.)

## 3. 기타자료

- 『국제신보』, 『부산일보』.
- 교육부 보도자료, 2018.06.22,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록원, 1949.12.31, 교육법공포,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0955022&dsid=000000000001&gubun=search>.
- 국가기록원, 1952.04.23, 교육법시행령,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1035263&dsid=000000000004&gubu>

n=search.

경상남도교육청, <http://www.gne.go.kr>.

OMEK KOREA(OMEK 한국위원회), <http://www.omepkorea.org>.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이은상&ridx=1&tot=12>  
(검색일: 2022.03.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38865&cid=51943&categoryId=54895>  
(검색일: 2022.03.20).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D%B4%EA%B4%91%EB%9E%98&ridx=0&tot=2>(검색일: 2022.03.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17693&cid=55774&categoryId=55965>  
(검색일: 2022.07.1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20508&cid=55772&categoryId=55811>  
(검색일: 2022.03.30).

투고일 : 2022. 05. 22. 심사완료일 : 2022. 06. 26. 게재확정일 : 2022. 07. 14.
---

| Abstract |

A Study on the Educational Practice of Lee Dong-hee,  
a Female Educator in Busan

Yang, Ji-Won

Lee Dong-hee is a pioneer of kindergarten education in Busan and a representative person who laid the foundation for children's education. She practiced her educational beliefs through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education in Busan and the growth of kindergarten education.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al history based on Lee Dong-hee's life and educational practice is as follows. First, after liberation from liberation, she was appointed as the director of Busan Kindergarten, the first public kindergarten in Busan, and prepared a system for the operation of the kindergarten, and conducted national education such as Korean language and Korean history. And she practiced education in everyday life through the educational method of creating teaching tools and toys. Second, an effort was made to improve the quality of kindergarten teachers by forming the Busan Kindergarten Education Group and conducting annual kindergarten teacher re-education workshops and qualification training. In addition, a local association Children's Day event was held to induce parental participation and provide a place for communication. Third, a local teacher training academy was established. And parental education was conducted to form correct educational beliefs. In addition, she worked for the globalization of local education through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Lee Dong-hee's educational practice activities are valuable in that they provided education appropriate to the

local circumstance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education in Busan and the formation of a kindergarten education system.

**Key words:** Lee Dong-hee, female educator, education of local history, children's education, Busan Kindergarten

